

NEWS

YTN

2021년 시무식 및 연말 포상 시상식



2021년 새해를 맞이해 'YTN 시무식·연말 포상 시상식'이 4일 오전 열렸다. 올해 시무식은 코로나19로 임원진과 연말 포상 수상자만 현장에 참석하고, 사내 공청 방식으로 진행했다. YTN 기술연구소의 나현철 협회원이 '장애인 자막방송 속기사 입력 프로그램 개선 및 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 개선'으로 공로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2020 '가장 공정한 미디어' 선정



사단법인 미디어미래연구소가 선정하는 '2020 가장 공정한 미디어'에 YTN이 선정되었다. 코로나19로 공식 시상식이 취소된 가운데, 4일 오전 미디어미래연구소 임원진이 직접 YTN을 방문해 상장을 전달했다. YTN은 지난해 말 2년 연속 국내 언론학자들이 뽑은 '가장 공정한 미디어'로 선정되었다.

MBC

지역사/계열사 사장 및 임원 선임

MBC는 1월 15일부터 22일까지 자회사 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갔다. 사장 선임은 부산MBC를 제외한 15개 지역사가 해당되며, 계열사에서는 MBC C&I, MBC 플러스, iMBC, MBC 아트, MBC 플레이비에서 총 11명의 임원을 뽑는다. MBC 지역사 사장 선임은 노사합의에 따라 노사 각 3인씩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며, 본사 사장이 추천 후보 중 내정자를 결정하면 방문진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창사 60주년 기념 'MBC 1961체' 무료 배포



MBC에서는 창사 60주년 기념 'MBC 1961체'를 개발해 2021년 1월 1일 무료 배포했다. 'MBC 1961체'는 1961년 MBC 인사동 사옥 옛 간판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1960년대 모듈 형태의 간판의 느낌을 현대적 디자인으로 재해석하여 두 가지 타입(한글 2,350자, 추가 한글 14자, 약물 982자, 영문 94자)으로 개발한 제목용 폰트이다.

MBC는 신뢰받는 공영방송의 채널 정체성을 담은 'MBC 1961체'와 국민에게 사랑받는 친근하고 레트로한 느낌의 'MBC 1961굴림체' 등에 시대적 감성을 넘어 제2의 도약을 위한 도전정신을 담았다.

웨이브 × MBC 드라마 '러브씬넘버#' 2월 방영



웨이브(wave) 오리지널 × MBC 드라마 '러브씬넘버#'가 오는 2월 방영한다. '러브씬넘버#'는 MBC가 기획하고 웨이브가 투자한 유니버싱형 8부작 드라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네 명의 여주인공들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겪으며 연애, 사랑, 가치관에 대한 심리적 갈등을 섬세하게 그린 극사실주의 멜로드라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거나 고민해봤을 에피소드로 특히 여성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러브씬넘버#'는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 웨이브를 통해 전편이 공개된다. MBC 채널에서는 2월 1일과 8일 밤 10시 40분에 23세 김보라 편, 42세 박진희 편이 순차적으로 방영된다.

BB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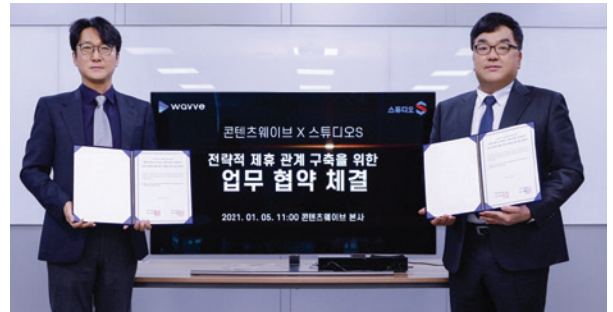
불교방송 관악산 송신소, FM 송신기 및 안테나 교체



BBS 불교방송이 라디오 방송의 선명도와 품질을 높이고 안정적인 주파수 송신을 위해 관악산 송신소에 FM 송신기 및 안테나, 방송 장비 교체 작업을 진행하였다. BBS 불교방송은 오랫동안 사용해온 방송 송신시스템이 노후화됨에 따라 작년부터 장비 교체 작업을 진행해왔고 올해 1월 교체공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안정적인 방송 송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WAVE

스튜디오S와 OTT 콘텐츠 공동투자 MOU 체결



스튜디오S와 웨이브가 콘텐츠 공동투자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스튜디오S 한정환 대표와 콘텐츠웨이브 이태현 대표는 지난 1월 5일, OTT 콘텐츠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투자 협약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콘텐츠 공동 기획 및 개발 등 상호 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또한 수익 다각화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콘텐츠 차별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스튜디오S는 국내 대표 OTT 플랫폼인 웨이브와의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드라마 제작기반을 마련하여 고퀄리티 작품을 기획, 개발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

KBS

2021년 예산 1조 4,970억 원 확정

KBS는 지난해 12월 30일 정기 이사회에서 비용예산 기준 1조 4,970억 원의 2021년도 예산안을 승인받았다. 수입예산 1조 4,972억 원, 비용예산 1조 4,970억 원으로 2억 원의 균형예산을 편성함으로써 2020년에 이어 균형예산 편성기조를 유지했다. 올해 예산은 전 년과 비교하면 수입예산은 586억 원, 비용예산은 585억 원 줄었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경기침체 영향 및 내실 경영을 위해 수입과 비용 모두 긴축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자본예산은 전년 대비 7억 원이 줄어든 641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 KBS의 예산편성방향은 '공적재원 확보 및 사업구조 효율화로 재정건전성 기반 마련'이다. 이를 위해 KBS는 앞으로 공격적 무 수행 강화, 미래방송환경 변화 대비 콘텐츠 경쟁력 제고, 수신료현실화 등 적극적 자원 확보, 경영혁신을 통한 재정건전성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TBS

TBS와 좀비덤, 시민을 위한 공익캠페인 MOU 체결



미디어재단 TBS와 애니작은 지난 1월 5일 ‘시민을 위한 공익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애니작이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공익적 목적의 협력 사업들을 함께 할 예정이다. TBS는 지난해 7월부터 애니작과 공익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애니작의 대표작인 <쥬비덤> 캐릭터를 활용하여 교통질서 캠페인 ‘안돼요’,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손씻기’, ‘코로나를 이기는 노인이 사는 나라’ 등을 진행했다. 앞으로 ‘헌혈’, ‘박역’ 등의 주제로 공익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CBS

재난방송 송출시스템 구축



CBS는 지난 1월 26일, 재난방송 송출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재난방송 송출시스템은 국가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으로부터 CAP 데이터를 수신받아 음성으로 변환해 송출하고, 그 결과를 다시 국가 시스템으로 통보해 주는 완전 자동화 시스템이다. 이번 재난방송 송출시스템은 본사뿐만 아니라 13개 지역본부도 동시에 구축됨으로써, CBS는 전국 동시 재난방송 송출시스템을

완비하게 되었다. 이로써 각종 재난 발생 시 지상파를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CBS 라디오가 공공재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T스카이라이프 조건부 재허가 및 현대HCN 인수 의견 접수

구 분		신청 법인	상대 법인	
법인명		㈜케이티스카이라이프	㈜현대에이치씨엔	
사업내용		위성방송사업(전국), 전기통신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8개 방송구역), 전기통신사업	
재무 상황 ('19년)	자 본 금	1,196억원	564억원	
	매 출 액	6,946억원	2,929억원	
	영업이익	694억원	408억원	
설립일		'01.1월	'20.11월(최초 설립일 : '92.3월)	
최대액출자자		㈜케이티 49.99%	취득 전	취득 후
			100%	100%
			㈜현대대류저넷	㈜케이티스카이라이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재허가를 위해 제출한 허가신청서, 무선설비 시설개요서, 사업계획서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건을 부과해 재허가(18개 위성방송국)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KT스카이라이프가 현대HCN을 인수하기 위해 신청한 인가·공익성 및 변경승인 심사에서는 대해 지난달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접수하였다.

SBS

신년특집 '세기의 대결! AI vs 인간' 방송



SBS는 2021년 신년특집
으로 인공지능(AI)과 인간
이 맞대결하는 <세계의
대결! AI vs 인간> 5부작
을 1월 29일부터 방송한
다. 국내 최초로 AI와 그 분야의 인간 최고수가 흥미진진한 정면
승부를 벌이는 이 프로그램은 모창, 골프, 주식투자, 심리 인식,
트로트 작곡 등 6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더 강력해진 AI와 이에
맞서는 인간 최고수들이 예측 불가능한 승부로 쫄깃한 긴장감
을 불러일으킬 예정이다.

MBC 창사 60주년 특집

VR 휴먼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시즌 2' 방송



지난해 방송되어 많은 이들에게 신선함과 공감, 감동을 주었던 MBC VR 휴먼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가 시즌 2로 돌아왔다.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된 이번 시즌 2는 4년 전 병으로 아내를 잃고 다섯 아이와 남겨진 주인공 김정수 씨가 VR로 구현된 아내를 만난다는 '로망스' 첫 번째 이야기와 가상현실을 통해 일반인이 체험자가 되어 어떤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VR 저널리즘'의 영역에 도전하는 '용균이를 만났다' 두 번째 이야기로 방송된다.

다시 만난다면 안고 싶고 만지고 싶을 아내. 어떻게 하면, 김정수 씨가 가상현실 속에서 아내를 실감하게 할 수 있을까? 사랑했던 아내와의 단 하루 만남을 어떤 기억으로 남기게 해야 할까? 팔베개는 가능할까? 손은 잡아볼 수 있을까?

사춘기 딸아이들의 반대에도 '아빠는 엄마 그림자라도 보고 싶다'며 아이들을 설득했다는 김정수 씨.

VR에서의 만남은 김정수 씨의 간절함에 대한 응답이 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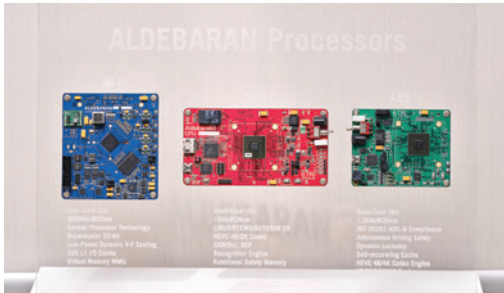
다섯 아이들에게 디지털로 복원된 엄마의 모습은 선물이 될 수 있을까?

VR 구현을 맡은 MBC 디자인센터 VFX(특수영상) 팀과 제작진은 부부의 아름다운 만남을 가상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VR의 스토리적 상상력에 도전했다. 같이 돌탑을 쌓고 소원을 비는 게임적 요소를 차용하고, VR의 특성인 상호작용을 이용해 간절하고 로맨틱한 '부부의 춤'을 준비했다. 제작진은 아내이자 엄마 성지혜 씨에 대한 가족들의 기억과 남아있는 사진과 동영상, 음성파일을 바탕으로 건강한 모습과 행복했던 기억의 순간을 구현했다. 성지혜 씨의 표정과 몸짓은 연극배우 우미화 씨의 모션 캡처를 통해 아내의 자연스러운 일상적 움직임을 표현했고, 목소리는 남아있는 1분 분량의 음성을 성우와 합성하는 보이스 컨버전(Voice Conversion) 기술을 적용해 최대한 기억 속 목소리와 가깝게 만들었다.

VR 휴먼다큐멘터리 '너를 만났다 시즌 2 로망스' 편은 2021년 1월 21일과 28일 방송되었으며, '용균이를 만났다' 편은 오는 2021년 2월 4일 목요일 밤 9시 20분에 방송된다.

ETRI, CES 2021에서 혁신기술 발표

인공지능, 홀로그램, 센서 등 미래 선도형 기술 전시



ETRI 연구진이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 칩, '알데바란' 프로세서가 적용된 기판



ETRI 연구진이 개발한 인공지능 반도체 칩, 'AB9(알데바란)' 프로세서



ETRI 연구원이 홀로그램 영상을 관찰하는 모습



ETRI 연구진이 개발한 음장보안센서와 관제 모니터 침입 알람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세계최대 소비자가전 전시회인 CES 2021에서 최신 ICT 연구성과를 온라인 공개했다.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복잡한 연산 처리에 최적화된 칩 개발 기술이다. 40테라플롭스(TFLOPS, Floating Point Operations Per Second. 1초에 연산을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주는 지표. 1초에 40조 번 계산 가능) 수준의 연산 능력으로 현존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면서도 전력 소모는 15W에 불과하다. 기존 상용 제품인 GPU칩 대비 수십 배의 연산 효율성을 지녀 고성능과 저전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기술로 평가된다.

디지털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 기술은 테이블탑형 디스플레이 기술과 초고해상도 공간광변조 패널 기술을 소개했다. 테이블탑형 디스플레이 기술은 컬러 홀로그램 영상을 360도 모든 방향에서 관찰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기술로, 기존 대비 픽셀 피치를 1μm까지 획기적으로 줄여 홀로그램을 볼 수 있는 시야각을 넓혔다. 특히 작년 8월, 세계 최고 디스플레이 학회에서 혁신 기술상을 수상한 바가 있어 주목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능형 음장보안 센서 기술은 소리를 이용해 무단 침입이나 화재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이다. 소리의 반사 및 회절 현상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고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과 융합, 응용하기도 쉬워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 212억 원 규모, '2021년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방송·미디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1년도 제작지원사업(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차세대방송 성장기반 조성사업)을 1월 22일부터 공고했다.

본 사업은 5G 확산과 비대면 일상화 환경에서 OTT 같은 창의적·실험적 콘텐츠의 새로운 유통 경로가 활성화되는 등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를 반영하여, 전년 189억 원 대비 올해 총 212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OTT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국내외 수요를 창출할 방송·미디어 콘텐츠 지원을 강화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는 'OTT 특화 신유형 부문'을 신설하여 OTT 유통에 적합한 숏폼(짧은 영상)과 크로스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을 확대한다(20년 34억 원 → 21년 51억 원). 이외에도 해외투자 유치 및 판매를 위한 '해외진출형', 다큐멘터리·교양물 등을 지원하는 '공익형', 협정체결국(38개)과의 공동제작을 지원하는 '방송통신협력협정이행' 등 총 4개 부문에 대해 154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부 문	분 야	주요 내용
해외진출형	국제공동제작	투자유치·선판매 등을 통한 국제공동제작 지원
	포맷형 콘텐츠	장편(50분물) 시리즈의 파일럿 프로그램 지원
OTT 특화 신유형	크로스미디어 콘텐츠	웹, 모바일 등 다양한 미디어 환경에서 활용 가능 콘텐츠 지원
	숏폼 콘텐츠	5분~15분길이의 짧은 완성형 콘텐츠 제작지원
공익형	공공·공익 우수프로그램	공공·공익 주제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해외 우수프로그램 우리말더빙	방송소외계층을 위한 우리말더빙 제작 지원
방송통신협력협정이행		방송협력협정체결국(38개)과 공동제작 지원

2021년 방송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 개요

차세대방송 성장기반 조성 사업에서는 국내 우수 콘텐츠 IP 확보를 위한 '신한류 프리미엄 콘텐츠 부문'을 신설하여 국제적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 고품질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프로젝트당 연간 최대지원금 10억 원, 최대 3년간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4K·8K 콘텐츠를 지원하는 '초고화질 콘텐츠'와 ICT 혁신기술(5G, AI, AR 등)을 활용하는 창의적 기획의 '실험도전형 콘텐츠'까지 총 3개 부문에 대해 57.5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부 문	주요 내용
신한류 프리미엄 콘텐츠	대규모 초고화질 방송콘텐츠 다년도 지원
초고화질 (UHD) 콘텐츠	다큐, 중계, 예능, 드라마, 웹드라마, 단막 등 초고화질 방송콘텐츠 지원
실험도전형 콘텐츠	신기술(5G, AI, AR 등) 기반의 신유형 방송콘텐츠 지원

2021년 차세대방송 성장기반 조성 사업 개요

21년도 제작지원 사업의 사업설명회는 2월 1일 온라인 비대면 플랫폼(유튜브, 카카오TV)을 통해 진행되며, 2월 15일부터 e-나라도움 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다.